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4월 11일 (금)

---(음력 3월 14일)---

Пятница

11 апреля 2025 г.

№ 14 (1213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2 апреля 1961 года лётчик-космонавт СССР
Юрий Алексеевич Гагарин совершил первый
в мире полёт в космическ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 4월 12일은 우주비행의 날로, 인류 최초의 궤도 비행을 매년 기념하고 있다. 이 기념일은 1962년 4월 9일 소련에 의해 제정되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위스토크-1 우주선을 타고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서 발사되어 지구 궤도를 도는 세계 최초의 인간이 되었다. 지구 근처 우주에서의 비행은 108분 동안 지속되었다. 2011년 4월 7일, 유엔 총회 특별 본회의에서 4월 12일을 국제 유인 우주 비행의 날로 공식 선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사할린주, 극동 도시 환경 질 지수로 우수 평가

사할린주의 14개 도시가 우수한 도시 환경 평가를 받으며 극동 지역 최고의 생활환경을 인정받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코르사코프, 돌린스크, 네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니와, 마카로브, 포로나이스크, 토마리, 쿠파리스크, 세베로쿠릴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오하 등이 주택 안전성, 인프라 상태, 현대적 서비스 다양성 등 36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2019년 대비 34% 상승한 사할린주의 도시 환경 지수는 2024년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가 244점(총점 360점)으로 선두를 달렸다. 세베로쿠릴스크(203점), 우글레고르스크(196점), 오하(195점) 등도 지속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

드미트리 아리스타르호브 사할린주 주택 공공사업부 장관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인프라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 발전 방향을 수립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에는 전국 도시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2개 공공장소와 5개 광장을 리모델링했다. 2025년까지 진행되는 ‘생활 인프라’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도로 정비, 공동주택 수리, 사회시설 현대화 작업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사할린주, 군사애국교육 평가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 획득

러시아 정부의 병역 준비·청소년 애국 교육 문제 경연위원회 대표단이 사할린주의 청소년 애국 교육 및 병역 준비 체계를 검증한 결과 139.6점(기존 점수 대비 +1.6점)의 높은 평가를 부여했다. 블라디미르 치몰란스키 해군중장이자 경연위원회 위원장은 4일간 현장 점검을 진행, ▲재활센터 ▲‘조국 수호’ 재단 ▲훈련센터 ‘아방가르드’ 등 혁신적 프로그램을 확인하며 “다른 지역에 적용할 모범 사례”라 극찬했다.

치몰란스키 중장은 “교육진의 열정과 청소년들의 참여도가 눈부셨다”며 “특히 ‘아방가르드’ 센터는 이론보다 실천 훈련에 초점을 둔 모범적 운영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사할린주는 동부군관구에 위치한 지역중 1위, 전국 5위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경연위원회는 사할린주 군사스포츠훈련·애국교육 센터 ‘군인(Воин)’에서 진행 중인 병

역 준비 프로그램과 군사애국 교육 사례를 심층 점검했다. 해당 센터는 2024년 4월 사할린에 문을 연 이후 총 1,414명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교육 과정에는 ▲지형학 분석 ▲전술 의학 기초 ▲무인기(드론) 운용 ▲통신 체계 구축 ▲공학 훈련 등 실천 밀착형 커리큘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파트리엇(애국가)’ 군사 테마파크에서는 5,000명 이상의 학생이 전차·항공기 체험 및 역사 교육을 받았다.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는 “경연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에 감사드린다”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확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군사작전 참전 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조국 수호’ 재단은 2023년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설립돼 의료·심리 재활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할린, 600여톤 알과 9톤 조개류 품질 검사

2025년 1월 초부터 4월 8일까지 사할린 지역의 수산물 품질 및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600톤 이상의 어란(알)과 9톤의 조개류를 검사했다고 러시아 연방 농업감독청 연해주 지역간 관리국이 전했다.

알류 검사는 1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0개 배치의 명태알(631.4톤), 7개 배치의 대구알(50.4톤), 2개 배치의 송어알(5.4톤)이 대상이었다.

조개류 검사는 1월 초부터 4월 8일까지 이뤄졌고 총 10개 배치(9.3톤)의 조개류가 검증됐다. 이 중에는 살아있는 관자·피조개, 냉동 피조개 살코기, 대왕굴 등이 포함됐다.

112건의 검사를 통해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신

러시아, 2026년부터 연 2회 연금 인상 실시

타치야나 골리코와 러시아 부총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연금을 연 2회(2월·4월)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월에는 전년도 인플레이션률, 4월에는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골리코와 부총리는 “2024년 빈곤율이 사상 최저치인 7.2%까지 하락했으며, 2036년까지 5%로 추가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할린 남동부 해역에서 규모 2.8 지진 발생

4월 9일 오후 4시 32분(사할린 시간), 사할린 남동부 오흐츠크해에서 규모 2.8도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10km로, 가장 가까운 스타로둡스코예 마을(38km 거리)을 포함해 돌린스크시와 소콜·옥짜브리스크에·포크로브카·루초이·스타로루스크에·베레즈나키·우글레자워드스크 마을 등 인근 지역에서 최대 1도의 진동이 감지됐으나, 인명·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할린 트로이츠코예 훈련장서 동부군사지구 군사훈련 진행

러시아 연방 국방부와 계약한 군인들이 사할린의 트로이츠코예 훈련장에서 연일 군전술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동부군사지구의 보도부의 의해 보도되었다. 사할린 매립지에서 군인들은 전투 그룹의 일부로 숲 지역의 숨겨진 이동뿐만 아니라 조건부 적의 건물 및 거점을 점령하는 훈련을 수행 중이다. 훈련 중에 계약군인들은 칼라시니코프 소총, SIA 저격총, PC 기관총으로 사격을 한다. “훈련의 가장 어려운 요소 중 하나는 서 있는 자세로 굴러가는 플랫폼에서 칼라시니코프 기관총을 쏘는 것입니다”라고 군사 지구 언론 서비스는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25억 루블리 규모 정수실험센터 건립

유즈노사할린스크에 25억 루블리 규모의 최첨단 정수실험센터를 건립한다. 이 건설은 정부-기업 파트너십과 로스워도카날 그룹이 체결한 양보 계약을 통해 가능해졌다. 90억 루블리 상당의 국내외 고성능 장비 48대를 도입, 생화학·방사능 검사 등 종합 수질 검증이 가능해진다. 김 올가 실험실 실장은 “민간 요청에 따른 맞춤형 검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할린주, 시마 어획 시즌 확정

올해 시마(연송어 종류)의 상업·레저 어획 시기를 확정되었다. 사할린주 수산부에 따르면 사할린의 남서부 해안에서 5월 1일부터 시마 상업 어획이 시작된다. 아니와 지역 강가에서는 5월 15일부터, 중북부 지역은 6월 5일부터 레저 낚시가 허용된다. 주 수산부는 “어획 허가증(卑罟브카)에 명시된 수량 내에서만 시마를 포획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새고려신문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15,49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주 청년 단체, 비영리단체 페스티벌에서 성과 소개

사할린의 비영리단체 페스티벌인 '대학생의 봄 축제'는 환경 보호, 애국심 함양, 의료 복지, 취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단체들을 한데 모았다. 지난 4월 7~8일 이틀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마야크'아트공간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운동가들이 활동 성과를 발표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사회 활동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축제 개막식에서는 비영리단체들의 전시회가 열렸다. 러시아 퍼스트 무브먼트, RSM, 러시아 거리, 윤아르미야(청소년 부대), 승리의 자원봉사단, 의료봉사단, 러시아 대학생 팀, '생태계' 전국인민전선 청년부 및 사할린 KVN(코미디 클럽) 등 10개 단체가 참석해, 주요 활동을 소개했다.

'러시아 대학생 분대'의 니키타 푸시코 사할린지부장은 "전국 1만 명 이상의 청년이 러시아 대학생 분대의 다양한 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할린 학생들도 활동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여름철 일자리 제공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 직업 탐색 지원 등 종합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가 성장 중"이라며 신규 회원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행사 기간 동안 참가자들을 위한 퀴즈·퀘스트, 청년 단체 브랜드 의류 전시, 성과 홍보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2025년 사할린 '대학생의 봄' 축제는 '마야크' 아트 공간을 비롯해 '옥차브리'영화관, '로지나' 문화회관, '라두가' 문화센터 등 여러 장소에서 개최된다. '대학생의 봄'사할린 지역 무대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옥차브리'영화관에서 진행되며 관객입장은 무료이다.

올해 페스티벌은 대조국전쟁 승전 80주년 및 조국 수호자의 해를 주제로 진행됐다. 선발 단계에서 가장 우수한 참가자들은 스타브로폴리에서 열리는 제3회 전러시아 '학교 학생의 봄' 축제와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제33회 '러시아 대학생의 봄'의 결승전에 사할린 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

'힐 위의 셰프' 사할린 특집 방송… 태권도 체험부터 김치 만들기까지

지난 4월 6일(일) 러시아 국영 티비방송 '제1채널(베르위 카날)'에서 방송된 '힐 위의 셰프(돌아다니는 셰프)' 요리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할린 특집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했다. 이번 편에서 알렉산드르 보그다노브(상트페테르부르크)와 글레브 레위츠키(니즈니노브고로드) 셰프들이 극동의 매력을 탐방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에 사할린 현지 요리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창의적인 요리 두 가지를 선보였다. "게를 잡아라"요리는 사할린 대게와 슈카(민물생선) 알, 크림 치즈를 채운 체부레키(튀김 만두)였고, "보물섬"요리는 훈제 가리비·새우·돼지고기로 만든 소스에 시트러스 제스트(감귤 향)를 더한 소갈비 구이였다.

한편 현지 문화를 체험해보기 위해 셰프들은 '고르니 워즈두흐'스포츠관광단지에서 스키를 타고, 순록 농장도 가보고, 개 썰매도 타보고, 현지의 전통 음식도 맛보았다.

섬주민들이 한식을 잘 즐기고 사할린에 한인들이 많이 산다는 걸 알게 된 셰프들은 이곳 사할린 한인들의 문화와 음식에 관심을 가졌다.

촬영은 지난 3월 5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셰프들은 문화센터 소속 '하늘' 타악 팀의 공연을 관람한 뒤 직접 장구를 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리고 '토르나도'스



포츠클럽에서 진행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관하여 리 파웰 스포츠 클럽 회장과 예가이 드미트리 사범의 지도하에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익혀보았다.

이날 셰프들은 사할린 한인의 미식 문화에 폭 빠지기도 했다. 요리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고, 특히 매운탕 맛을 아주 좋아했다. 셰프들은 한인회 측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반찬 - 다양한 나물과 전 또한 맛보았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이번 촬영을 통해 사할린의 다문화적 면모가 잘 드러났다"며 이번 촬영에 협조한 모든 분들, 그리고 공연팀 '하늘'과 태권도 클럽 '토르나도'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편은 사할린의 자연, 스포츠, 역사, 음식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 체험기를 담아내며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극동의 매력을 전달했다.

사할린주, 장애인 민원 19배 감소…의료 복지 확대로 사회적 지원 견인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아나톨리 크루트첸코 주 인권 옴부즈만과의 정기 회동을 통해 지난해 인권 현안 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의에서 크루트첸코 옴부즈만은 재활보조기기 지원 절

차 개선으로 장애인 민원이 19배 감소했다고 보고하며 주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연방사회보호기금 신임 임원진과 협력해 T재활보조기기 지원 과정을 전면 개편했

며, "민원 감소는 긍정적이지만, 복지 의약품 미지급 사례 등 잔류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가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사할린주를 사회복지 선도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의약품 관련 민원

발생 시 즉시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크루트첸코 옴부즈만은 "타치야나 모스칼코바 러시아 인권옴부즈만도 사할린의 다각적 복지 모델을 극찬했다"며 리마렌코 주지사의 개별 맞춤형 접근을 칭찬했다. 또한 "군 의료

시설 확충으로 극동 지역 내 모범 사례가 됐다"고 덧붙였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시민의 눈과 귀 역할을 해준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 복권으로 1,000만 루블 리 이상의 대박 터트려

사할린 지역 주민이 10,618,601 루블리의 놀라운 복권 당첨의 주인공이 됐다. 이 행운은 2025년 4월 7일 추첨된 복권 "스포츠로토5/36" 134948회차에서 찾아왔다고 복권 운영사 홍보실이 전했다.

당첨자는 아직 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스톨로토" 웹사이트에서 70루블리로 복권을 구매했다. 스포츠로토 5/36의 규칙에 따르면, 슈퍼 상금을 얻으려면 티켓의 두 필드의 모든 숫자를 정확히 맞혀야 한다. 행운의 당첨자는 복권 번호가 우승 조합과 일치하며, 첫 번째 필드에 10, 21, 28, 31, 34, 두 번째 필드에 1을 맞춰 대박을 터뜨렸다. 당첨 번호는 무작위 생성기(RNG)로 결정된다.

2014년부터 러시아 내 모든 복권은 연방세무서 감독 하에 국가에서 운영하며, 재무부와 체육부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스톨로토"를 통해 판매되는 복권 수익금은 목표별 공제를 통해 다양한 수준의 예산을 보충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며 사회적 기반시설 및 행사 지원을 위한 목적성 기부금으로 사용된다.

Житель Сахалина сорвал джекпот на сумму более 10 млн рублей в лотерее

Ж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 счастливым обладателем невероятного выигрыша — 10 618 601 рубль. Это произошло в 134948-м тираже лотереи «Спортлото «5 из 36»,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7 апреля 2025 год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лотереи.

Известно, что счастливчик еще не забрал свой выигрыш. Свой победный билет он приобрел за 70 рублей на сайте «Столото».

По правилам «Спортлото «5 из 36», чтобы выиграть суперприз, нужно угадать все числа в обоих полях билета. Сахалинцу повезло: в первом поле он угадал числа 10, 21, 28, 31 и 34, а во втором — число 1. Выигрышная комбинация определяется случайным образом с помощью генератора случайных чисел.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с 2014 года все лотереи в России явля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и находя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Федеральной налоговой службы. Их орга-

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ают Министерство финансов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отереи, проводимые «Столото», вносят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пополнение бюджетов различных уровней за счет целевых отчислений. Эти средства направляются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объектов и мероприятий.

"고르니 워즈두흐"스키장, 2025년 눈 축제 울러 퍼져

지난 주말, '고르니 워즈두흐'스포츠관광단지는 겨울 오락을 즐기는 사람들의 인기 집결지였다. 2025는 축제에 참여한 수백 명의 방문객은 맑은 의상, 화려한 공연, 축제 분위기를 즐기며 흥겨운 감정에 흠뻑 빠졌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관광단지 홍보실을 통해 보도되었다.

참가자들의 상상력은 대단했다. 활기찬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창의적인 의상을 입고 화려하게 하강하고, 트랙의 결승선에 있는 수영장에서 잊지 못할 "수영"을 즐겼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르메이카'산에서 열린 스노바이크 쇼였는데, 프로 라이더들이 놀라운 기술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즐겁게 했다. 손님들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고, 솜사탕과 팝콘을 즐기며, 기념으로 다양한 사진을 찍었다.

'고르니 워즈두흐'의 행정부는 축제의 마법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스키 시즌이 계속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тгремел Снежным фестивалем-2025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л центром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любителей зимних развлечений. Сотни гостей Снежного фестиваля-2025 получили массу позитивных эмоций, наслаждаясь яркими костюмами, зрелищными представлениями и праздничной атмосферой.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ТК.

Фантазия участников была ключом: танцы под энергичную музыку, эффектные спуски в креативных нарядах и незабываемые «купания» в бассейне на финише трассы.

Кульминацией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сноубайк-шоу на «Армейке», гд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райдер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невероятное мастерство, вызвав восторг у зрителей.

Гости согревались горячим чаем, угощались сладкой ватой и попкорном и делали яркие фотографии на память.

Администрация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выразил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сем, кт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создании волшебной атмосферы фестиваля, и напомнила, что сезон катан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국가두마, 다자녀 가정 자녀 대학 무상교육 법안 제출

러시아 자유민주당(ЛДПР) 소속 의원들이 국가두마에 다자녀 가정 자녀의 특별 할당제를 통한 대학 무상교육 법안을 제출했다고 『의회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저출산 지역에 한해 적용되며, 대상 지역 선정은 정부의 권한으로 규정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특별 할당제 도입이 저출산 지역의 인구 통계적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학생 다수가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행 『교육법』에 따르면 특별 할당제는 고아·장애인·전쟁 참전 용사 등 3개 범주에만 적용되고 있다.

Госдума хочет сделать бесплатным обучение в вузах для детей из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Депутаты от ЛДПР внесли в Госдуму законопроект, который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дети из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с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квот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Парламентская газета».

Новая льгота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яться только на регионы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рождаемости. Какие именно регионы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перечень таких субъектов РФ, определит кабмин.

Авторы законопроекта считают, что право на получени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квоте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на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ах с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ью, а в будущем позволит большему количеству детей стать успешными в профессии.

Согласно федеральному закону «Об образовании», сейчас в вузы по специальной квоте могут поступить три категории граждан — дети-сироты, инвалиды, ветераны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8면에 계속)

사할린, 디지털 지방자치 포럼 개최…"국민 중심 정책이 핵심"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4월 8~9일 제2회 전러시아 포럼 “작은 고향은 러시아의 힘” 지역의 날이 열렸다. 전국 82개 지역에서 온 150여 명의 전문가들이 사할린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의료·복지·주택공사사업 분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방정부는 국민의 첫 번째 문턱”이라 강조하며,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전권 대표도 역시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혁신해야 한다”고 하였다.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사할린의 3대 행정 핵심인 프로젝트 관리, 린 기술, 데이터 관리를 소개하며 “모든 결정은 국민 이익을 우선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시간 데이터는 위기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체육관 이용

률 분석을 통해 시니어 봉사자들에게 추가 운영 시간을 배정한 사례처럼, 국민 참여 시스템을 확대 중입니다.”라고 하였다.포럼 참가자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디지털’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회복지·의료·교육 분야의 첨단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시찰했다. 세르게이 나드사딘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장은 “도시를 손바닥 위처럼 관리하는 기술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며 무인기 활용 사례(주택관리·환경 모니터링)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대통령실과 사할린주정부가 후원했으며, 16개 지역 중 14번째 개최로 의제의 다양성을 인정받았다. 포럼 결과는 통합 결의안으로 정리되어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주정부 자료에서)

안산에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건립…동포청 "고려인 더 보듬겠다" 변철환 동포청 차장, 4일 제막식 참석해 축하 및 헌화

4일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가 세워진 것과 관련,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기념비 건립을 계기로 국내 거주 고려인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변철환 동포청 차장은 축하에서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져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념비는 흥범도 장군, 최재형 선생과 같은 저명한 독립운동가들뿐만이 아니라, 연해주와 머나먼 중앙아시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고려인들의 존재와 가치를 대한민국 사회에 알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자랑스러운 독립정신과 민족적 연대의 역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변 차장은 “동포청은 고려인 동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정착지원, 교육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념비 제막식은 안산시와 (사)너머, 대한고려인협회가 주최했고, 고려인독립운동기념비 건립국민추진위원회와 고려인·한인이주 1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해 열렸다.



행사에는 변 차장을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 등 안산시 지역 인사, 고려인 후손 및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 각 지역 고려인 동포 등이 참석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화요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조기 대선 경비로 지출할 예비비 3천957억원 의결… 선거보전금 제외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서울=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또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파면됐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권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천957억원(선관위 3천867억원·행정안전부 90억원)으로, 국내의 선거관리·정당보조금·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7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지출하는 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선거보전금 제도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득표율이 15% 이상인 정당은 선거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인 정당은 비용의 절반만을 돌려받고, 득표율 10% 미만의 정당의 경우에는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전금을 포함해 4천949억4천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제21대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권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제주 / 오애순

천 만번 파도,
천 만번 바람에도
남아있는 돌 하나.
내 가심 바당에
삭지 않는 돌 하나.

엄마.

“서사가 갖는 힘은 생각 외로 거대하지요. 빅토르 위고의 명작 <레미제라블>을 읽을 때면 자베르의 질기다 질긴 추적이 떠오릅니다. 장발장이 주인공인데 왜 그 또라이 같은 형사를 떠올리느냐, 이리심 저야 할말 없지요. 죄를 지었고, 법이 온당치 못했다 하더라도 탈옥을 한 몸. 그걸 잡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자베르 경사는 실제 극의 진행에 있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와 맞물릴 만큼 장발장의 정체를 까발리고 감옥에 쳐 넣어야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의 테두리와 윤리, 도덕 이런 애매하고도 모호한 정의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자베르는 그릴 수 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아버지 역시 거기 감옥살이를 했던 셈이니, 장발장을 잡아내기 위해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건, 우리 인간이 가진 아이러니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와도 같은 것일 테니. ‘확인’을 해야했겠지요. 죄인은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위고는 심혈을 기울여 자베르의 행동에 카오스적인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프랑스는 몰리에르 같은 위트의 격이 넘치는 훌륭한 극작가와 장쥬네처럼 과격적인 극작가가 나란히 파괴 거리를 걷는 예술의 나라지요. 랭보의 라임도 대단하지만 도데의 짧은 소설들은 평생 제 머릿속을 맴돌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보물처럼 가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러시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늘 그렇듯, 예술입니다. 체호브,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 솔제니친, 톨스토이 등. 대단한 분들이 파이프 담배를 태우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음악가들까지 대려면 평생을 대도 모자랄 위인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겠네요. 이를테면 체호브의 벚꽃동산에서, 잠깐 개가 누구였지, 로빠힌, 그렇지요, 로빠힌. 로빠힌의 그 의문스러우면서도 담백한, 하지만 벚꽃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만든 뒤 처절하게 외치는 대사를 떠올리면 우리 인간에게 예술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지 깨닫을 수 있는 거겠지요. 그 부분을 인상 깊게 읽은 분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어 지는 겁니다. 제가 그랬지요. 예술이라는 단어가 문학이라는 단어가 이제부터 머릿속에서 도저히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

프랑스와 러시아의 예술을 논하려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화제가 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 속에서 소개된 시를 소개하는 거고요. 김수현 선생 이후로 드라마가 과연 문학의 서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의심하며 게으름을 피우던 제게 이 작품은 도끼로 제 머리를 찍어 내리듯 훌륭한 서사를 그려줬습니다. 무엇보다 부박스럽기 그지없는 구어의 향연은 부러움을 넘어 제 눈이 멀고 당장 제 귀가 들리지 않을까 겁이 날만큼 매력적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좋은 작품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는 점 역시 기적이에요. 부모님의 희생을 그래서 미련이라고 부를 수 없는 회한을 드라마는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토록 눈부신 작품도 다 있구나 싶은 마음에, 작품 소개도 할 겸 제주가 아닌 ‘엄마’를 그린 시를 여러분께 선물하려고요. 그래야 응당 마땅 고도리일 테니, ‘ㄱ.’”

(서울에서 허진원)



'6월 3일' 조기대선주요일정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

4월 4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청구인용, 21대 대선예비후보자등록 시작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 확정·의결. 국무총리, 대선일 공고
4월 중~	각정당 선관위 구성·경선 등 후보 선출
5월 4일	대선입후보 희망 공직자 사퇴 시한
10~11일	정식 후보자 등록일
12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
20~25일	재외투표
29~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4일	21대 대통령 취임

연합뉴스

이재운기자 = yoon2@yna.co.kr
20250408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нкурс эссе к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стите меня, папа! Благодарю за все, мама!»

Ким Сан Сун(Южно-Сахалинск), 2 место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11, продолжение №12, 13)

Сбывшееся предсказание

Мама, моя махонькая хрупкая мама, одна подняла троих детей, дала всем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женила сына и выдала замуж дочерей. Она не могла никуда устроиться на работу, не зна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Это не помешало ей сблизиться с соседями Поповыми. После бегства папы дядя Володя с тетей Ниной помогали нам, заводили свою «Ниву» и отвозили на рынок коробки с помидорами, выращенными на нашем участке. Но чаще мама одна тащила тележку с тяжелыми ящиками с северной окраины города на центральный рынок. Иногда мы с братом помогали, но не часто - оба после школы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а затем учиться в институтах. Огород стал нашим кормильцем...

Родительский дом находился на самом крайнем переулке севе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 домом пустырь, и далее речка. Мы обработали 20 соток неудобья, чтобы посадить там картошку, капусту... В пять лет мне дали в руки большой деревянный молоток-киянку, с которой надо было обойти грядки и разбить крупные комья засохшей после перекопки глины. Эту глину разбавляли песком и коровяком много лет, прежде чем она стала пригодна для выращивания помидоров и огурцов. Я теперь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споминаю наше детство, помню запах мягкого рассыпчатого чернозема, в который превратился, в конце концов, наш суглинок. Ни с чем не спутаю терпкий запах и острый вкус созревающих томатов... Понимаю, именно труд закалил меня, и я не чураюсь никакой работы, не боюсь никаких трудностей.

Мама, красавица с белой нежной кожей, превратилась в смуглянку с обветренным лицом и грубыми потрескавшимися руками. Она не вылезала из штанов-шаровар, ей некогда было надеть платье и туфли. Они лежали на полке в дальней кладовке. Время от времени я залезала туда, вытаскивала мамини туфельки и ходила на каблуках в полутьме, представляя себя взрослой красоткой, гуляющей по центру столицы, как в фильме «Я шагаю по Москве»... Тем не менее, больше всего на свете я любила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читать книги допоздна, придумывать и шить красивые наряды...

У нас с мамой были сложные отношения. Она была строга, умна, принципиальна,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а. Я же витала в облаках, и влекло меня нечто неведомое... Внешностью и пластикой я напоминала маме ее ветреного мужа - и это приносило ей страдания, о которых хотелось за-



быть. Но по прошествии лет я вижу, что между нами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общего, чем различий.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пережитые трудности, мама до конца жизни сохранила ту искрящуюся улыбку, которая в далекой юности покорила сердце папы. Она не раз говорила нам, детям: «Русские - самые хорошие. Они приняли нас, мы здесь хорошо живем! У нас свой дом, своя земля... Я смогла вырастить, выучить вас»... И поворачивалась к нам с сияющей улыбкой на потемневшем морщинистом лице...

Мамочку мы похоронили 26 июня 2016 года. Она прожила без малого 92 года, дольше всех в нашем роду. Когда-то в отрочестве маме нагадали: если сложится легкая благополучная судьба, то проживет короткую жизнь. А вот тяжелая трудная судьбина будет долгой. Мама никак не могла взять в толк, что за неправильное предсказание! Оказалось, все верно...

По программе репатриации она прожила в Кимпхо и Инчоне почти 10 лет, но, когда сильно заболела, она привез матушку домой, в Россию, на Сахалин. Мы, все трое детей, ухаживали за ней каждый день до самой кончины. А сейчас ухаживаем за могилкой. И поэтому у меня перед мамой нет чувства неисполненного долга. В отличие от папы... С каждым годом я все чаще вспоминаю родителей и безмерно благодарна им за то, что родили и вырастили нас, за родительскую любовь и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Большой поклон вам и уважение, Вечная память!

ваша дочь Сан Су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Приморь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героев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В городе Уссурийске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прошел митинг, посвященный событиям 4-5 апреля 1920 года. Тогда в Приморье японские войска устроили массовый террор в отнош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против корё-сарам, боровшихс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Без суда и следствия были убиты Петр Цой(최재형) и другие корейские деятели антияпонского движения, а также известные участники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ергей Лазо, Алексей Луцкий и Всеволод Сибирцев.



Как отметил в своей речи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ой автономии корейцев Уссурийска Николай Петрович Ким: «Время, а прошло уже 105 лет, не может стереть память о людях, отдавших жизнь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Родины».

Вот что об этих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сообщала 9 апреля 1920 года владивостокская газета «Голос Родины»:

«В 5 часов утра 5 апреля вся Ново-Корейская Слободка была окружена японской пехотой и кавалерией. Чины японской жандармерии, с заранее приготовленными списками, входили в дома и арестовывали. Списки были составлены пр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шпионов корейцев. Японцы сумели организовать шпионаж среди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лободки. Посредственный шпион кореец получает 200-300 иен. По дороге из дома в дом жандармы забавлялись и наносили тяжелые увечья корейцам. В школе, где находилась редакция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жандармы подожгли кипы воззвани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Школа сгорела до основания. В числе арестованных студент Восточного института Моисей Пак, бывший секретарь Приморского окружного суда Константин Чагай. Корейцы при аресте заявляли, что они русские подданные, вы не имеете права нас арестовывать. Жандармы со смехом отвечали: Этот край наш, нам ничего не стоит арестовать всех рус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Арестованным завязывались руки и ноги; одни отвозились по направлению к Гнилому углу, другие в третью казарму на Эгершельд, где помещается главный застенек японской жандармерии. 5 апреля число раненых и избитых прикладами достигало 300. Настроение среди корейцев подавленное. На улицах слободки маршируют японские патрули. Корейцы запрятались в домах; уличная жизнь совершенно замерла. Аресты японцами корейцев продолжаются. Корейцам запрещено спрашивать друг друга об арестованных».

<https://t.me/saramkor>

Папоротник – растение для души и тела

*Предвечерний час объемлет
Окружающий орешник.
Чутко папоротник дремлет,
Где-то крикнул пересмешник.
В этих листьях слишком внешних,
В их точеном очертании,
Что-то есть миров неведомых...*

(В. Брюсов, «Папоротник»)

Наступила весна, и недалек тот день, когда сахалинские семьи начнут сбор папоротника. Многие до сих пор заготавливают его, хотя и не так массово, как раньше. Ведь это трудоемкое занятие. Сегодня «косари» (корейское название папоротника) легко купить в супермаркете или попробовать в кафе и ресторанах. Те, кто предпочитает готов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берут сушеный.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все сахалинцы, от мала до велика, знают эту закуску — самую популярную на острове, независимо от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возраста и пола.

Но что мы знаем о папоротнике, кроме его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й ценности? Для начала — это древнейшее растение Земли. Еще до эпохи динозавров он покрывал планету зеленым ковром. Деревьев тогда не существовало. За 300 миллионов лет папоротник пережил все катаклизмы и до сих пор радует нас своими узорчатыми роскошными листьями. Его внешний вид почти не изменился, а ареал охватил все континенты, кроме Антарктиды.

Первыми оценили его питательность жител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корейцы, китайцы, японцы, а также коренное население Новой Зеландии - маори. Последние называют его «пикопико» и едят нераспустившиеся спиральки-улитки. Спираль в культуре маори символизирует единство и непрерывность, изображения которой часто используют в декоративных ремеслах. Вот вам и муза, и связь с искусством.

В Корею папоротник — символ красоты, искренности и доверия. Как блюд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и он обязателен на поминальном столе. Вместе с «дораджи» (растение семейства колокольчиковых, 도라지) и шпинатом (시금치) он образует триаду: темно-коричневый цвет папоротника олицетворяет настоящее бытие (земное), белый «дораджи» (на сахалинских столах его заменяла редька) — прошлое, а зеленый шпинат — будущее. Гармония во всем!

Папоротник вдохновляет не только кулинаров. Циатея серебристая (сорт папоротника), эндемик Новой Зеландии, украшает герб страны. Ее листья, будто припорошенные инеем, обрамляют назва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А сахалинский папоротник красуется на гербе Ноглик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Стилизованный лист, утвержденный в 2004 году (№ 1441 в Геральдическом регистре РФ), символизирует плодородие и богатство природы края.

Так скромное растение, знакомое каждому, раскрывается в истории, культуре и даже геральдике. Настоящий универсал природы!

Ким Ен Хи

Вокальная группа «Чайка» - 25 лет на сцене

В этом году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Москве отмечает свой 25-летний юбилей. Ровно столько же лет исполняется и вокальной группе «Чайка» (갈매기), которая стала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организации. За четверть века состав коллектива не раз менялся, но его миссия оставалась неизменной: через народные и современные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делиться богат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 москвичами.

Свои первые выступления участники группы давали на мероприятиях Общества, создавая особую атмосферу на праздниках и встречах. Со временем «Чайка» вышла за рамки локальных событий, покорила сцены Москвы. Их концерты стали мостом между корейскими традициями и российскими зрителями.

3 апреля 2024 года групп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Че Зюн Ха выступила в Центре московского долголетия с программой, посвященной 80-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В исполнении прозвучали как



корейские мелодии, так и русские песни военных лет. Зрители тепло встречали артистов, а финальные аплодисменты стали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их искренней благодарности.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десятилетий сохраняет связь поколений, объединяя людей через культуру и творчество. Группа «Чайка» — яркий пример того, как искусство преодолевает границы и языковые барьеры. Желаем коллективу новых свершений, вдохновения и неизменной любви публики!

Ким Тхе Ик,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МОО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Досроч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пройдут 3 июн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значило досрочные президентские выборы на вторник, 3 июня.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было утверждено 8 апрел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День выборов объявлен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выходным. Как отмет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Хан Док Су, дата проведения выборов выбрана с учётом того, чтобы у кандидатов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времени для подготовки. Свободные выборы – это основа демократии и важнейший механизм выражения воли народа,- подчеркнул Хан Док Су. Он призвал провести голосование честно и прозрачно, чтобы завоевать доверие граждан. Как сообщили в Центризбиркоме, регистрация кандидатов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10-11 м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лужащие, желающи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в качестве кандидатов, должны уйти в отставку со своих должностей до 4 мая. Предвыборная агитация может проводиться с 12 мая по 2 июня. Голосование на избирательных участках за рубежом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20 по 25 мая, на морских судах – с 26 по 29 мая, а досроч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 29-30 мая.

Солдаты КНДР нарушили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Около деся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ненадолго пересекли военную демаркационную линию в пределах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ы. После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по громкоговорящей связи и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х выстрел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они вернулись обратно.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бъединённом комитете начальников штабов вооружённых сил РК,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ёл 8 апреля около 17:30 на восточном участке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Никакой ответной активности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границы не замечен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усилили режим охраны границы,-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аналогичный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ёл в июн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оенная демаркационная линия горизонтально делит пополам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ую зону, установленную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оглашением о перемирии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1950-53 годов.

Назначены новые судьи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8 апрел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Хан Док Су назначил преемников судей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суда Мун Хён Бэ и Ли Ми Сон, чьи полномочия истекают через 10 дней. Их места займут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Ли Ван Гю и судья Сеульского апелляционного суда Хам Сан Хун. Кроме того, утверждено назначение Ма Ын Хёка девятым судьёй в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и Ма Ён Чжу - в Верховный суд. Как отметил Хан Док Су, решения о назначениях приняты после консультаций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ов, юридиче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МИ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Ли Ван Гю и Хам Сан Хун обладают большим опытом работы, пользуются доверием и известны своей справедливостью. Они способны защищать права граждан и выносить решения в интересах страны.

Сеул против притязаний Японии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8 апреля министр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Тайсуэкэ Мибасе вызван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где ему выражен протест по поводу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притязаний Токио на острова Токто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В «Синей книге» по дипломатии за 2025 год, которую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МИД Японии представил кабинету министров, говорится, что РК якобы «оккупирует острова Токто без каких-либо законных оснований». Сеул «решительно протестует против неоднократных несправедливых претензий Японии на острова, которые исторически, географически 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равом являются сувер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ей РК»,-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В РК будет приня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едстав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объёмом 10 трлн вон (6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8 апреля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Чхве Сан Мок, подводя итоги совещания минист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блок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сле введения Вашингтоном взаимных пошлин в отношении основных торговых партнёров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стране существенно осложнилась. Волатильность на мировых рынках усилилась, что отразилось и на внутренних валютном и фондовом рынках. Кроме того, требуется срочная помощь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лесных пожаров. Часть средств пойдёт на поддержку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РКИ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чалась полномасштабная президентская гонка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бирает обороты предвыборная кампания перед досрочными президентскими выборами,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3 июня этого года. Глав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страны - оппозиционная 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Тобуро" и правящая консервативн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 приступили к официальным процедурам выдвижения кандидатов. При этом между двумя партиями наблюдается разительный контраст: если у демократов уже известен безусловный фаворит, то в стане консерваторов царит неразбериха и острая конкуренция.

В "Тобуро",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роль лидера кампании уверенно занял Ли Чжэ Мен - экс-председатель партии и один из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политиков страны. Он в среду, 9 апреля, ушел в отставку с поста председателя и 10 апреля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т о выдвижении. Согласно внутрипартийному сценарию, регистрация претендентов завершится около 14 апреля, после чего начнется двухнедельный цикл региональных дебатов. Финаль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и утверждение единого кандидата намечено на 3-4 мая, хотя возможна и более ранняя дата - 1-2 мая, если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гонки окажется небольшим.

Помимо Ли Чжэ Мена, от партии желали баллотироваться также заявили еще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однако очевидно, что они будут выполнять роль статистов - слишком велико преимущество безусловного лидера в лице Ли. О своем выдвижении заявили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Ким Ду Гван 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им Дон Ён.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 своих намерениях может объявить и экс-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Кёнсан Ким Гён Су.

В то же время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потенциальных участников уже сообщили об отказе от участия: это бывш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Ким Бу Гём, экс-депутат Пак Ён Чжин 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 Ким Ён Нок. Все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консолидации внутри "Тобуро" вокруг фигуры Ли Чжэ Мена, чья популярность и узнаваемость значительно превосходят других возмож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По прогнозам, в партийных праймериз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лишь 4-5 человек, что позволяет избежать процедуры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тсечения кандидатов. Впрочем, повторимся, данная процедура у демократов выглядит как формальность и выльется лишь в подтверждение единой кандидатуры Ли Чжэ Мёна.

Совсем иначе складывается ситуация в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которая из-з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4 апреля импичмента президента РК Юн Сок Ёля находится в кризисе. Здесь нет очевидного лидера, и число претендентов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стёт. Уже около десяти политиков открыто заявили о намерени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выборах, и список продолжает расширяться. Только за один день - 9 апреля - о выдвижении сообщили сразу три кандидата: экс-министр труда Ким Мун Су, мэр Инчхона Ю Чжон Бок, градоначальник Тэгу Хон Чжун Пхёи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Северная Кенсан Ли Чхоль У. Вместе с уж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и депутатами Ан Чхоль Су и Ли Чжон Хёном, их стало пять.

Также в течение ближайших пары дней о своем участии в праймериз заявят мэр Сеула О Се Хуна, , бывший глава партии Хан Дон Хун и экс-депутат Ю Сын Мин.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в гонку включатся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хунчхон, мэры городов Пусана и Тэчжона, а также политики первого эшелона - На Гён Вон, Юн Сан Хён, Чан Дон Хёк, экс-вице-премьер Чхве Гён Хван и бывший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Вон Хи Рён. В итоге общее число потенциаль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в рамках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двадцать.

Из-за складывающейся ситуации партия намерена организовать двухэтапную процедуру отбора. Регистрация кандидатов пройдет 14-15 апреля, затем последует проверка документов и 16 апреля будет объявлен список участников первого этапа, после чего во второй тур пройдут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После двух туров отсева останутся два финалиста, один из которых будет утвержден в качестве официального кандидата 3 мая.

В целом же фаворитом президентской гонки считается только что покинувший пост главы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Ли Чжэ Мён. Согласно опросам,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он с большим отрывом опережает любого из возможных конкурентов.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Открытие памятника в Корее: корё-сарам возвращают свою историю

4 апреля 2025 года в городе Ан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изошло событие, которого ждали тысячи потомков: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памятник участникам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из числа корё-сарам — корейцев, живших в СССР и посвятивших свою жизнь борьбе за свободу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Этот памятник, воздвигнутый в парке Хваран г.Ансана, где проживает большинство корё-сарам (более 20 тыс человек), стал символом признания той части истории, которая десятилетиями оставалась за предел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внимания.

История, возвращённая усилиями диаспоры
Инициатива создания памятника принадлежит Обществу поддержки корё-сарам «Номо» 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ё-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 2019 года более 2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сами корё-сарам, проживающие в Коре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пожертвованиях, переводили суммы от 10 000 до 100 000 вон.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амятника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Бён Чхольхван,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Ли Мингын, мэр города Ансан, потомки участников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ё-сарам из разных стран.«Установка памятника, увековечивающего благородные идеалы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з числа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 это глубоко символическое и радостное событие. Он напомнит обществу не только о таких личностях, как генерал Хон Бом До и учитель Чхве Чже Хён, но и о тысячах безымянных героев, которые боролись за свободу Кореи в Приморье и далё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Мы надеемся, что этот монумент станет мостом, соединяющим поколения, и поможет нашей молодёжи узнать о духе сопротивления и национальной солида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тметил в своей речи Бён Чхольхван. Он также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должит поддерживать практические шаги в сферах адаптаци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сотрудничая с диаспорой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властями.

Голос от имени общины
От имен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выступил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АКРК Но Александр, сказав: «Этот памятник не только про прошлое. Он о наше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будущему этой страны».



Светлана Югай, правнучка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Ма Чун Гера и глава Общества потомков при АКРК поделилась: «Чтобы доказать участие прадеда в борьбе, пришлось искать документы в архивах Москвы и Приморья. Сегодня его имя высечено в камне. Это — не только гордость. Эт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резидент АКРК Тен Жанна подчеркнула: «Это памятник не только для тех, кто живёт в Корее. Он для всех корё-сарам — в России, Узбекистане, Казахстане. Это наш общий голос, наша история, которая теперь услышана на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е».

Новый этап историческо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оявление памятника стало первым официальным признанием участия корейцев из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в борьбе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на уровне государства. Он стал не только актом памяти, но и началом диалога о диаспоре как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Пресс-служба АКРК

Рекордны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получ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в основной капитал составил свыше 355 млрд рублей. В 2023 году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был меньше на 50 млрд рублей.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озвучили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фиксирован максимальный темп роста объемов инвестиций. Показатели превысили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е. Даже с учетом инфляции рост составил почти 10 процентов.

— Это успех. Несмотря на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антироссийские санкц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веренно идет вперед. Немаловажно и то, что большую часть инвестиций составляют частные вложения, а в структуре инвестиций лидерство удерживает несырьевой сектор.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означа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открытие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Частные инвесторы вложили в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298 млрд рублей, бюджетные инвестиции составили 56 млрд. Соотношение несырьевых отраслей к сырьевым составило 57 на 43 процента.

Самыми привлекательными сферами для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й ста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анспорт, угольн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й и нефтегазовый комплексы. В несырьевом секторе наибольший прирост достигнут в отрасли туризма — на 40 процентов.

В нефтегазовом комплексе также увеличился приток инвестиций — 153 млрд рублей, по итогам 2024 года, против 110 млрд — в 2023-м.

— Наиболее капиталоемкие проекты — э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четырех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завод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х, строительство магистрального угольного конвейера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парки — нефтегазовый 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и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СахалинТех, газификация региона совместно с Газпромом, комплексные проекты жилой застройки в новых ЖК: «Уюн», «Горизонт», «Южный парк», «Зеленая планета», «Сердце Сахалина»,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Большой прирост инвестиций отмечается также в рамках концессионных соглашений. Концессионеры вложили 21 млрд в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ЖКХ.

Кроме того, резиденты TOP и СПВ проинвестировали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25 млрд рубле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лидер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индексу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число наи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х для проживания попали сразу 14 го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их - Южно-Сахалинск, Холмск, Корсаков, Долинск, Невельск,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Анива, Макаров, Поронайск, Томари, Курильск, Северо-Курильск, Углегорск и Оха.

Индекс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учитывает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комфорт жилья, состояние коммун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наличие разнообразных и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уг в жилой зоне. На количество полученных баллов влияет безопасность и загруженность дорог, пешеход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доля освещенных улиц, обеспеченность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качество оформления город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другие элементы. Всего для оценки используют 36 парамет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казатель вырос с 2019 года на 34%. Максим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которое может набрать город — 360. При этом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считаетс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если индекс качества составляет 181 и более баллов.

Свою лидирующую позицию подтвердил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учшив результат 2023 года: с 203 до 244 баллов. По итогам конкурса комфортнее жить стало еще в трех городах: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Углегорске и Охе, набравших 203, 196 и 195 баллов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 Мы планомерно работаем над тем, чтобы каждый населенный пунк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 комфортным и современным. Наша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достой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жизни как в городах, так и селах,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х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Оценка индекса качеств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грает ключевую роль в создании комфортной и безопасной город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лученные данные помогают в развитии городов. Они позволяют оценить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инимаемых мер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Нам определенно есть к чему стремиться. Но результаты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мы движемся в правиль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Аристархов.

Ежегодно комплексную оценку городов проводят специалисты Министерств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При этом учитываются данные, полученные от регионов, МВД России, Мин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Росстата и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ДОМ.РФ.

В 2024 году благоустроили 22 общественные территории и 5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водимого Минстроем России.

Сегодн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круг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здают и обновляют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 скверы, парки, площади, набережные.

На рост индекса влияет, в том числе, реализация на острова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в частности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который до 2025 года входил в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Жильё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В текущем году работа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родолж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жизни».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ыла развернута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подъездов и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дорог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поставила высокую итоговую оцен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ила работу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вопросам подготовки граждан к военной службе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молодежи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вице-адмирала Владимира Цимлянского. В течение четырех дней члены комиссии посетили ряд учреждени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работающих с молодежью.

Итоговая оценка комиссии после очной проверки региона - 139,6 балла, что выше первоначальной на 1,6 бал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й конкурсной комиссии вице-адмирал Владимир Цимлянский отметил большой потенциа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вопросах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и подготовки граждан к военной службе. По его словам, многие наработ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еобходимо взять на вооружение и другим субъектам страны.

— На Сахалине мы работаем впервые, и нам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регион не просто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этом конкурсе, а показал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В этом заслуга команды губернатора, все здесь работают, и мы видели эту инициативу и желание показать, что самое лучшее, и у вас это получилось.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ваш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и фонд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Безусловно, мы будем интегрировать их работу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Что касается учеб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Авангард», мы много где видели их работу, но у вас мы увидели центр таким, каким он должен быть. Это не просто общежитие, где за партами сидят ребята. Здесь мальчишки и девчонки проходят хорошую подготовку, требующую проявить себя, показать, на что они способны. И третий момент, на который я хотел бы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 очень много молодых девушек, парней,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этими вопросами. Ведь работать с детьми по приказу нельзя, это можно делать только по призванию. И мы видели эти горящие глаза и с каким желанием ребята там работают,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Цимлянский.

В 2024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субъектов РФ, расположенны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и вошла в пятерку лучших по стране по итогам работы по подготовке граждан к военной службе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молодежи.

— От имени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хотел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комиссию за работу в регионе. На протяжении четырех дней посетили вс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объекты, познакомились и с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с работой испол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о системе подготовки граждан к военной службе. И мы благодарим за то внимание, которое комиссия проявил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миссия ознакомилась с успешными практиками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военной службе и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которые реализуют в центре развития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Воин».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о свои двери в апреле 2024 года. С тех пор оно подготовило уже 1414 курсантов, которые изучают топографию, основы тактической медицины, учатся управлять БПЛА и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связь, проходят инженерную подготовку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одится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На островах открыты 1 региональный и 5 зональных центров подготовки граждан к военной службе.

С 2022 года работает центр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ёжи «Авангард». Он расположен на базе палаточного лагеря «Сахалинская звезда» в Анивском районе. Опытные инструкторы проводят занятия для 10 классов по военно-прикладным дисциплинам, таким как огневая и тактическая подготовка, медицина, начальная военная подготовка.

На базе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парка «Патриот» проводится множество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тематическ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У посетителей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идеть за рулем боевой машины или в кабине самолета, пройти по партизанской деревне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Более 5000 школьников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посетили экскурсии по парку.

Развернута работа по социализации и реабилитации

бойцов, вернувшихся из зоны спецоперации. В 2023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ось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где ветеранам оказывают содействие в получении всех полагающихся мер поддержки, включающих медицинскую и социальную реабилитацию, лекарствен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помощ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технических средств реабилитации и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ого лечения, а также содействие в переобучении 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е.

На строите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Сахалина внедряют практику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для студентов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ывал на «Домостроительном комбинате №1»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едприятие внедряет практику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для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егодня почти половина сотрудников, занятых в производстве, - это выпускники и студенты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Дом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1» - одно из веду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десь производят железобетонные панели для возведения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Компания участвует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жилых комплексов региона. С 2022 года «Дом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Сахалинским техникумо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техникума компания со студенчества воспитывает своих будущих сотрудников.

— Основные работники цеха - порядка 40 человек. 18 из них, то есть почти 50%, - это студенты техникума и те ребята, которые уже его окончили и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у нас работают. Ребята приходят к нам на практику, мы в этот же момент заключаем трудовые договоры, они получают зарплату. Отучившись, парни уходят в армию,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с ними связь. В этом году два студента,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практику, возвращаются к нам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службы. Мы провожали их до военкомата, тесно общаемся, ждем их обратно, - рас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у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О «Дом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1» Игорь Ч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общался с молодыми сотрудниками. Они рассказали, что довольны представленн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и условиями труда.

— Давно окончил техникум, уже в армии отслужил, вернулся сюда работать, зарплата устраивает, - рассказал молодой человек.

«Домо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 1» сотрудничает с техникумом 2,5 года. Учебное заведение создает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чтобы студенты приобретали практический опыт в ре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 При обращении руководства мы переводим студентов на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лан обучения. У ребят по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мещать обучение с работой, получать первые трудовые навыки,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и запись в трудовой книжке. В дальнейшем это является гарантией для их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а да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Хотелось бы отметить систему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сформированную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За каждый студентом закрепляются наставники: со стороны комбината - это ведущие специалисты, со стороны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 мастера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Татьяна Дорошенко.

Создание системы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лледжа,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помогло компании укомплектовать штат в условиях кадрового дефицита на строительном рынке, с другой — обеспеч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молодежь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в надежной компании и достойной оплатой труда.

— Сегодня в регионе строитель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очно обучаются порядка 600 человек. С учетом техстроек, которые у нас развернуты, потребность в кадрах большая. Мы готовы все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строить на объект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тараемся всем выпускникам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йт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ую практику на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представляющих отрасль. При распределении в районы помогаем индивидуально — кому-то с подбором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кому-то с переездо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иколай Давыдов.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показавший эффективность институт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планируют внедрить и на других крупных предприятиях отрасли в регионе.

Губернатор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дать оценку потребности в трудовых кадрах на строительном рынке.

— Чтобы компетентно решать проблему дефицита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ужно оцен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 определить, сколько кадров необходимо и сколько готовит наше образование. В том числе в разрезе раз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Прошу сделать эту работу ответственно, не для формального отчета. Мы вместе будем думать над эффективными мерами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аша задача воспитывать собственные кадры для строительной отрасли и создавать лучшие условия, чтобы ребята оставались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и работали на благо Сахалин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5월20~25일, 전 세계 재외공관서

국무회의서 대통령선거 일정 확정함에 따라 재외선거 일정도 정해져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오는 6월 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치러지는 재외선거 일정도 정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투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공관에서 진행된다.

중앙선거위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24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을 받고, 오는 5월 4일 재외선거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는 늦어도 선거일 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 확정은 선거 30일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여기서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거주자를,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에 속한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몇 개 투표소가 설치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해외 115개국, 220곳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됐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됐다.

해외 투표용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회송돼 오는 6월 3일 국내 투표가 끝난 뒤 함께 개표될 예정이다.

한편 3년 전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는 해외에서 15만8천여 명이 참여했고, 2017년 대선에선 22만1천여 명이, 2012년 대선에서는 16만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인천공항, 스카이트랙스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 2관왕 달성

전 세계 500개 공항 중 가장 친절한 공항 등극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다시 한 번 입증

인천국제공항(사장 이학재)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5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에서 세계 최우수 공항 직원상과 아시아 최우수 공항 직원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을 입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 스카이트랙스(Skytrax) 주관으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인천공항이 두 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스카이트랙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항공 서비스 전문 컨설팅 회사로, 매년 전 세계 공항과 항공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된 온라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특히 인천공항이 수상한 '최우수 공항 직원' 부문은 공항 직원들의 전문성, 고객 응대 품질, 서비스 일관성 등이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500여 개 공항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공항 상주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통해 공항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다국어 통역 전용 앱 운영을 통해 외국인 여행객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AI 기반 안내 로봇을 도입해 여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상주직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일한 고객 서비스 철학을 공유하고, 매년 서비스 우수 직원을 선발해 '인천공항 친절왕'을 시상하는 등 서비스 마인드 제고에 힘쓰고 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세계 최고의 서비스 공항을 목표로 9만 4000여 공항 상주직원



현지시각 4월 9일 오후(한국시각 10일 새벽) 스카이트랙스(Skytrax) 주관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5 월드 에어포트 어워즈(2025 World Airport Awards)'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김창규 운영본부장(사진 가운데)이 '세계 최우수 공항 직원상'을 수상한 후 스카이트랙스 에드워드 플레이스티드(Edward Plaisted, 사진 오른쪽) 회장 및 공사 직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

이 합심해 얻은 값진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항 운영 전반에 걸친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인천공항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의 주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고객경험인증제에서 최고등급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하는 등 '서비스 및 고객 경험 선도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재외동포신문)

동포청-시흥시, 협력통해 국내동포 지원 시너지 높인다

변철환 차장, 2일 임병택 시장과 정책 논의... "변화 체감하도록 적극 지원"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2일 경기도 시흥시청에서 임병택 시장을 만나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흥시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스쿨 플랫폼 구축(2024) △정왕본동 주민자치회 내 글로벌 분과 운영 △중국동포 중심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등은 지역 내 상호문화적 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변 차장은 "그동안 국내 체류 동포 관련 업무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개별적으로 수행해 왔지만, 이제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만큼 재외동포청의 동포 관련 전문성과 지자체의 현장 경험을 결합하여 동포들의 정착지원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 차장과 임 시장은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의 국가적 과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사회 일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외국인과 중국동포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가 전체 인구(60만)의 12%(7만)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간 정부 정책 관심대상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국내 체류 동포 지원을 재외동포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답했다.

* 시흥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중국동포 거주자가 경기도 안산시에 이어 2위를 차지

임 시장은 이어 "시흥시는 재외동포청의 방향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공동사업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올해부터 국내동포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노무·세무 교육, 직업·한국어 교육, 주민화합 행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재외동포청,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사회와 협력방안 논의

4월 7일 이기성 정책국장, 신 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 면담

이기성 재외동포청 정책국장은 신 안드레이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을 4월 7일(월) 오후 인천 송도에 있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에서 만나,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사회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신 회장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사회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면서, 동포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마티 소재 케이파크(K-PARK) 건립 사업, 고려인동포 모

국방문 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국장은 재외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재외동포청과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신 안드레이 회장은 신라인그를 대표이자 알마티 시의원으로서, 2022년 9월 알마티 고려민족중앙회 회장에 취임했다.

1989년 창립한 이 단체는 우리 문화의 보존과 계승, 한국어교육, 한국과의 교류 협력 확대, 카자흐스탄



내 소수민족과의 화합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2010년 제정)에 따라 고려인동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문화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K-푸드 수출 확대 장으로

동포청-aT, 협력 체결

이상덕 청장 8일 "우리 농식품 업체 북미시장 진출 적극 지원할 것" 약속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가 오는 17일(목)부터 20일(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K-푸드 북미시장 진출 확대의 장(場)으로 만들기로 했다.

두 기관은 8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에서 이상덕 청장과 홍문표 사장이 참가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K-푸드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식품기업에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OK Biz)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여하는 115개의 우리 농수산식품 기업들이 북미 시장 바 이어와 만나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문표 사장은 "우리 농수산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수출과 해외 진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과 홍 사장은 앞서 2월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만나 우리 농식품 업체의 북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데 서로 힘을 모으기로 논의한 바 있다.

(재외동포청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300여 명 유도 선수들, 이. 파르후트지노브 추모 대회서 승부

지난 주말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3가지 유도 지역대회가 펼쳐진 가운데 동시에 이.페. 파르후트지노브(전 사할린 주지사) 추모 제27회 『사할린 주지사배』 유도 대회, 사할린주 챔피언십과 18세 이하 청소년 주선수권대회가 진행되었다고 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유즈노사할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코르사코브, 마카로브, 우글레고르스크, 홈스크 등 사할린 전역에서 300명 이상의 선수들이 그레코로만 레슬링 올림픽 예비학교 체육관에서 경기를 펼쳤다.

주최측은 스포츠가 특히 인기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참가자가 모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틀 동안 선수들은 화려하고 치열한 싸움을 펼치며 기술과 숙련도를 보여주었고, 화려한 던지기, 고통스러운 잡기, 깔끔한 승리인 이폰(완승)을 선보였다.

이번 대회는 러시아 유도의 창시자이자 삼보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와실리 오세프코브의 고향인 사할린에서 유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와 다른 지역 청소년들을 점점 더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Более 300 борцов сошлись в турнире по дзюдо памяти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инимал сразу три крупных региональных турнира по дзюдо: XXVII традиционный «Кубок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амяти И. П. Фархутдинова, чемпион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ервенство региона среди юношей до 18 ле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

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30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акаровского, Углегорского и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ов —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е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по греко-римской борьбе.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тили, что так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вполне закономерно для региона, где спорт пользуется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спортсмены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навыки и мастерство, проводя зрелищные и напряженные поединки, полные эффектных бросков, болевых приемов и чистых побед — иппонов.

Прошедш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стали еще одним подтверждением того, что дзюдо на Сахалине, родине Василия Ощепкова, основоположника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дзюдо и одного из создателей самбо,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ся и привлекать все больше молодых людей как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так и в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루위키(RUVIKI) 온라인 백과사전, 2025년에 2,200만 명 이용

2025년 초부터 현대 러시아 인터넷 백과사전에 2만 9천 건의 신규 자료가 추가되었다. 또한 해당 포털에는 국가내 민족들의 언어 섹션이 신설되었으며, 플랫폼 운영진에 따르면 이용자 수는 2,200만 명에 달했다.

타타르어, 바시키르어, 마리어, 야쿠트어, 체첸어 등 러시아 내 소수민족 언어 섹션이 신설됐다

가장 많이 조회된 분야는 러시아 국가 정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사, 그린란드 지리·문화 항목이었다. 이외에도 ‘역만장자 목록’, ‘마블 유니버스 영화 목록’, ‘국가별 인구 통계’ 등 데이터 중심 콘텐츠와 유명 인물·운동선수·시인 전기도 인기를 끌었다.

2025년에 개발자들은 메인 페이지를 개편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루키위키에 ‘요약 기능’을 추가하고 모바일 버전의 카드에는 ‘문서 프리뷰’를 볼 수 있다. 블라디미르

메데이코 대표는 “포털 팀이 프로젝트를 개선하여 현대적이고 편리한 사이트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며 이 결과는 이용자 수뿐에서만 아니라 이들의 습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기사 읽는 것 만 아니라 ‘요약 기능’, ‘검색 필터’, ‘음성 읽기’ 등 기능을 더 자주 이용한다.

또한 타타르어, 바시키르어, 마리어, 야쿠트어, 체첸어 등 민족언어 섹션이 신설됐다.

Интернет-энциклопедией РУВИКИ в 2025 году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22 млн человек

С начала 2025 года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интернет-энциклопедии появилось 29 тысяч новых материалов. Кроме того, на портале появился раздел с текстами на языках народов страны, а количество пользователей составило 22 млн человек, сообщает пресс-центр портала.

Чаще всего пользователи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разделами «Россия», «Военные действия на Украине» и «Гренландия». Не остались в стороне 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такие как «Список миллиардеров», «Список фильмов вселенной Marvel» и «Список стран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Также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нтересовала биография известных людей, спортсменов и поэтов.

В 2025 году разработчики адаптировали главную страницу, научили РУВИКИ пересказывать тексты. В мобильной версии теперь можно увидеть преамбулу статьи в карточке материала.

Гендиректор энциклопедии Владимир Медейко отмечает, что команда держит свое обещание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проект, делать его современным и удобным. И результат виден не только по числу посещаемости, но и по привычкам пользователей. Так люди стали чаще не только читать статьи, но и актив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функцией «Пересказ», «Уточнение поиска» и «Озвучка».

Кроме того, в «РУВИКИ» появились разделы на татарском, башкирском, марийском, якутском и чеченском языках.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15 руб.4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Р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РАССРОЧК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Р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